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을 범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권 (AA-이상),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A2-이상)(유동화포함), 양도성예금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추가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듀레이션을 0.3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채권,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307억 원

펀드유형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설정일**

(운용펀드 : 2025년 01월 14일)

- 클래스 A : 2025년 05월 02일
- 클래스 A-E : 2025년 05월 02일
- 클래스 C : 2025년 04월 03일
- 클래스 C-E : 2025년 04월 08일
- 클래스 C-F : 2025년 01월 14일

벤치마크 Call 100%

신탁업자 우리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2영업일	2영업일
17시 경과후	3영업일	3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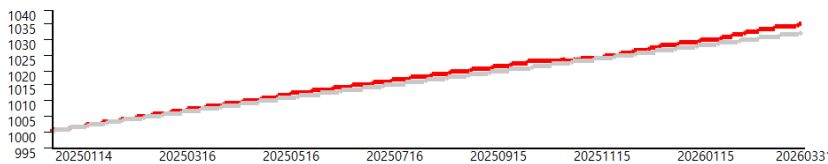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25%	0.79%	1.39%	2.82%	-	-	-	3.51%
클래스 A	0.23%	0.74%	1.29%	-	-	-	-	2.39%
클래스 A-E	0.23%	0.76%	1.32%	-	-	-	-	2.42%
클래스 C	0.21%	0.69%	1.19%	-	-	-	-	2.41%
클래스 C-E	0.23%	0.73%	1.27%	-	-	-	-	2.54%
클래스 C-F	0.24%	0.76%	1.34%	2.73%	-	-	-	3.40%
벤치마크	0.21%	0.63%	1.27%	2.59%	-	-	-	3.23%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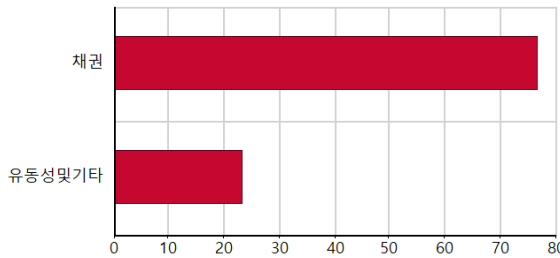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 운용펀드기준가 — BM기준가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3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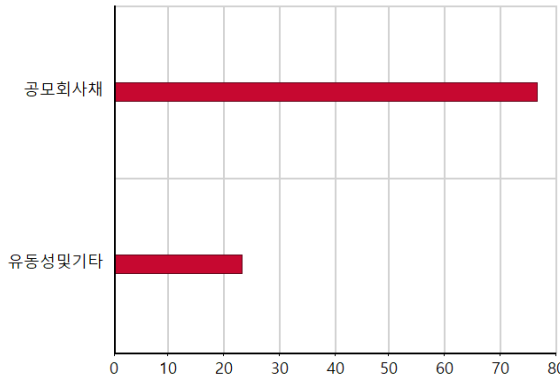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채권	76.7
2	유동성및기타	23.3



**<채권 종류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공모회사채	76.7
2	유동성및기타	23.3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3월말 기준 채권비중)**

종목명	비중(%)	종목명	비중(%)
한국투자증권 20260331-1-290(단)	7.7	디알제십팔차 20260116-84-5(단)	3.8
엠지캐피탈 20260319-92-2(단)	7.6	엘오트월드제삼차 20260123-90-1(단)	3.8
현대건설308-2	3.9	부국증권 20260205-88-17(단)	3.8
다올투자증권 20260102-90-1(단)	3.8	비에스에프플러스제일차 20260209-88-1(단)	3.8
한양증권 20260108-89-3(단)	3.8	롯데케미칼 20260227-89-1(단)	3.8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0.179% (판매 0.1%)
- 클래스 A-E : 총 연 0.129% (판매 0.05%)
- 클래스 C : 총 연 0.379% (판매 0.3%)
- 클래스 C-E : 총 연 0.229% (판매 0.15%)
- 클래스 C-F : 총 연 0.089% (판매 0.01%)

(공통사항)

운용 0.06%, 신탁 0.01%, 사무관리0.009%

**선취수수료**

클래스 A: 납입금액의 0.3% 이내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15% 이내  
클래스 C, C-E, C-F: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3월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유가 급등 우려가 확대되면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큰 폭 상승하며 출발하였습니다. 정부의 100조원대 시장 안정 계획이 발표되고 유가가 소폭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금리는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전쟁 확산 우려가 심화되며 유가가 추가 상승세를 보이자 이에 연동해 국내 금리도 단기물 위주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국내 채권시장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가 변동, 주요국 통화정책 경계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3월 중순 국제유가 급락과 10년물 입찰 호조, 당국의 국제-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기대 등에 힘입어 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유가가 재차 반등하고 매파적인 금통위원의 발언 등이 영향을 미치며 강세 폭은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유가 안정 흐름과 위험선호 회복 속에 중장기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매파적으로 해석된 FOMC와 고유가 장기화 우려, 주요국 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이 재차 부담으로 작용하며 약세 압력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이란 강경 기조와 군사개입 가능성이 부각된 23일에는 전쟁 장기화 우려가 급격히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이 20bp 이상 상승하는 등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월말 미국의 공격 보류 및 협상 기대, 국내 발행물량 조절과 바이백 발표 등은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크레딧 심리 악화와 환율 상승, 대외금리 재상승이 상방 압력을 지속시키면서, 결국 국고3년물은 전월 말 대비 51.5bp 상승한 약 3.56%, 10년물은 전월 말 대비 43.2bp 상승한 약 3.88% 수준에서 마감하였습니다. 단기물 금리의 경우, 3개월 AA- 여전채는 전월 대비 10.5bp 상승한 3.052%로 마감하였습니다. 동기간 펀드는 3개월 이내의 전단채, ABSTB 등을 매수하며 보수적인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RP 매수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했습니다. 펀드는 BM 대비 약 3bp (보수 차감 후) 상회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2월 금통위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국내 채권시장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에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주요국 전반의 긴축 기대가 재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국내 채권시장은 국고 3년 금리가 3.5%를 상회하며 긴축 우려가 확대되었고, 차기 한은 총재 인선 과정에서 매파적 기대가 반영된 점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500원을 상회하며 대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유가발 긴축 우려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가운데, 전쟁 리스크 완화 시 과도했던 금리 상승분의 되돌림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적자국채 없는 추경 기조, 국고채 단순매입 및 바이백, 발행량 조절 등 정책 대응과 WGBI 자금 유입이 금리 상단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을 고려할 때 수급 요인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 채권시장은 ① 지정학 리스크 전개 과정과 유가 흐름 ② 코어 인플레이션 및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폭 ③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반영 흐름 ④ 미 사모대출 부실화 여부에 따른 신용위험 ⑤ 신임 한은 총재 청문회 발언 ⑥ WGBI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규모 ⑦ 국내 시장금리 안정을 위한 정책조치 등 대내외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단기시장은 3월말 기준 3개월 A1 CP의 경우 3.11%, 여전채 및 회사채 AA- 3개월의 경우 각각 3.05%, 3.08% 수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인한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펀드의 듀레이션은 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며, 3월에 이어 4월에도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